



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1958년 3월 27일 제3호

우편물(가)급인가

등록 1960년 7월 1일

등록번호 제 다 523호

발행인	박필수
편집인	김지성
편집장	이성갑
외대신문(02-7128, 961-4151)	
외대학보(02-965-7048, 961-4152)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0-791 경기도 용인군 오현동 학원로	
인쇄인	김필로

제 534 호 (주간)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990년 3월 13일 (화요일)

등조회의 재개 결정

총장, 일방적 인상 고지서 발송 해명 학교측 14.28% 인상고수·합의여부 불투명

서울·유인캠퍼스 총학생회장 박필수총장은 지난 3월8일(목) 오전10시 총장실에서 면담을 갖고 「등죽금 조정회의(이하 등죽회의)의 재개」를 결정하였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등죽금 조정회의의 재개와 학교측의 상정할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였으나, 박총장은 「등죽금 고지서 발송은 시일이 촉박함때문에 이룰 수 없었다」며 「등죽금 인상률 14.28%가 적당하다고 생각했으나, 교수측과 노조측이 제출한 타과교의 평균수준인 11%로 고지서를 발송한 것」이라고 해명한 뒤 「등죽금 조정위원회(이하 등죽위)는 언제든 개회해 있으나, 학생측이 요구하는 자료는 모두 제출할 것이냐. 등죽위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인상률을 합의,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을 학생측에 부탁했다.

그러나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김기석(중앙·이라)은 면담후 「등죽금고지서 생기는 장황한 등죽금 인상률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대학의 등죽금의 요구에 학교측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비판하



고 「학교측은 지난해 12월 면담에서 등죽금인상 합의를 위해 등죽회의 중 학생측의 자료 제출 요구를 모두 들어 주겠다고 했으면서도 사실상 학생들의 요구를 무시했다」며 「학교측은 등죽회의에 성실히 임할 뿐만 아니라 등죽회의의 지원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등죽금 인상률에 총장과의 면담이 있기 전인 지난 7일(수) 각과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연의회를 열고

학원자주와 사안 및 등죽금 부담경감 등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유인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8일(목) 오후2시 해방광장에서 5백여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90년 등죽금 11%인상 저지를 위한 연대의회 결의대회」를 열고 학교측의 일방적 고지서 발송을 규탄하였다.

이날 집회에서 부총학생회장 정보영(서학·이대·이라)은 「총장과의 면담에서 11%인상은 가산이라는 대답을 받았다」며 「등죽위 재개를 학교가 인

정한 만큼 적극적으로 등죽금 문제에 참여하여 정확한 인상 원인을 밝히라고 학교측에 요구했다.

또한 총학생회장 이영복(동학·아프리카)은 「등죽금 부담 경감」, 「등죽금고지서 회수」, 「총장과의 강제 청구마련」, 「불이행은 총학생회와 함께 해결」등의 행동지침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제(12일) 회의를 시작으로 24일만에 제1회 등죽회의에서 학교측은 계속 14.28%를 고수하는 등, 각과위원들의 논의가

엇갈리고 있어 합의의 도출이 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총학생회는 현재 등죽회의중인 타과교와의 연대투쟁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의 단결된 투쟁 유도」와 「학교측의 상정할 자료제출」에 학교측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등죽금인상 저지를 위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투쟁 일정은 다음과 같다.
▲13일(화) 등죽금투쟁 원정 순례를 위한 예외대 투쟁 선 포식(오후3시 노천광장) ▲14일(수) 등죽금 공청회(오후4시 노천광장) ▲15일(목) 비상전례 학생 대표자회의(오후5시 대학인 소강당) ▲16일(금) 등죽금투쟁기간 마련을 위한 일일 집회(학생회관 구내다랑)

서울, 통학방식변경 부서번호도 4천단위
서울캠퍼스 구내직립통학방식이 실시된 지 2년 24일(토)부터 실시되고 있다.

구내직립통학방식은 외부로 대표전화(965-7001)를 걸어 교관을 거쳐 통학하던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시간에 관계없이 대표전화(961)와 각 부서 교육 구내전화번호를 걸면 교원들이 직접 통화를 방식이다.

또한 각 부서별 전화번호도 2천단위에서 4천단위로 변경되었다. (예: 영양과 2207-4207)

한편, 구내에서의 회의·구내 회의와 방방방·방방방 전화 번호는 종전과 동일하다.

용인 총학 「반미주간」선포 한·미관계 본질폭로 목적

유인캠퍼스 총학생회는 오는 3월14일(수)부터 18일(일)까지 「반미주간」을 선포하고 14일부터 시작되는 임시스피리트 혼련을 거쳐 지속적인 반미활동을 벌일 계획도 함께 밝혔다.

한편, 용인군과 광주군이 임시스피리트 혼련지역으로 선정된 미국국가가 개창되고 미군들이 모여드는 실정에서 미군들이 모인 역사의 수반을 생각하여 반미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등죽금, 교통문제 등 학원자주와 사안과 맞물려 진행될 이번 「반미주간」에 대해 총학생회 기획부장 정준호(서학·광운대)는 「임시스피리트 혼련이 북한의 남침을 방어하기 위한 혼련이라고 하지만 그 근근이 무기수준을 붙여 침략전쟁을 위한 혼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임시스피리트 혼련과 미문화원 방화사건에 초점을 맞춰 미국의 본질을 학원들에게 알릴 나감」이라고 밝힌 뒤 14일 해방광장에서 「선포식」을 개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준호는 또 「미문화원 방화사건이 있기 전에는 한국은 반미 투쟁자들로 불리던 것이나 사건이 발생한 82년 이후 한국은

경영정보 교수임용 문제돼 주임교수 발령에 대학원생 및 학생 반발농성

일반대학원 경영정보학과 주임교수로 경영정보대학원의 정인근교수가 발령된 것에 대해 일반대학원생과 경영정보학과 학생들이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87년 일반대학원 경영정보학과 신설당시, 특수대학원인 경영정보대학원의 교수와 대학원 학생의 거센 반대후 계속되는 두대학원 사이의 문제점이 처음 표면으로 나타난 계기인 이번 발령은 학교측이 일반대학원의 사정과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또한 대학원장과 경영정보학과 교수들과의 아무런 협의없이 결정하여 커다란 문제

로 대두된 것이다.
이번 발령에 대해 일반대학원 윤정구(석사과정 1학기)는 「특수대학원과 일반대학원은 과목이나 배우는 내용에서 엄연히 다르다」며 「대학원원 교수가 일반대학원의 주임교수로 오는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사회과학대 경영정보학과 학생들은 지난 3월 7일(수) 사회과학관 403호에서 배머리에 참석한 가운데 비상과총회를 열고 대학원생과 함께 공동대처하기로 결정한뒤 서울로 올라와 총장실 앞에서

5시간동안 농성과 토의를 벌이기도 했다.
「시험과목과 교과과정, 교수임용 등에 전권을 가지고 있는 주임교수가 학부와 대학원 사정을 거의 모르는 교수로 임명된 것」이라는 박정준(일반대학원 석사과정 3학기)의 지적처럼 적인자가 발령되어 못한 이번 인사조치는 「대학원장이 건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는 학칙에도 위배가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대학원생들은 앞으로 자원을 각오하고 「정인근 주임교수 임명 즉각 철회」, 「경영정보학과 교수들 주임교수로」라는 요구가 관철 될때까지 학생과 연대하여 농성, 총장면담요구 등을 계속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직원노동조합 주최 「단체협상안 설명회」열려

본교 직원노동조합은 「1990년도 단체협상안 설명회」를 지난 3월 7일(수) 서울 대학원소강당과 용인 교양관 201호에서 가졌다.

이번 설명회에서 직원노동조합 임재원씨는 ▲기존에 교수가 받고 있는 중무차중, 부처장학을 사무직원에게 임명할 것 ▲임금인상은 절대 생활비 상승에 맞출 것 ▲예산부문에 특화된 주장에 사투

리, 기능직을 모두 연일호봉으로 할 것 등의 단체협상안 가안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하였다.

이번, 회의중 제2대 조합장 김영은씨는 3대 노동조합에 대해 「3대 노동조합은 조직구성원들의 이익과 권익을 방어할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 조합원들의 신속한 처리와 교섭으로 협상기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추가 등록기간 미정
등록금확정되지 않자

「등죽금 조정회의」에서 등죽금이 확정되지않아 추가등록기간이 아직 발표되지 못하고 있다.

계무처에 따르면 추가등록기간이 오는 3월15일(목)부터 21일(수)까지로 예정되었으나 등죽금이 확정후 정확한 추가등록기간을 발표하기위해 아직 등록기간을 보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수도」
▲등죽회의 재개키로
-이제는 어차피 쓰지 않게 되나...
▲문화간·정호윤 정면대결
-5공과 6공의 토도리키게
▲용인교토유교인상 반발 확대
-올라도 「집착」이더라.

수습기자모집 마감박두

시험일시 : 3월14일(수) 오후 5시 30분
시험장소 : 서울·사회과학관 308호
용인·교 양 학 관 214호

외대학보



반의자

▲「한번 소년원에 들어가 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자 주위사람들이 슬금슬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냉대해 심했어... 아무에게도 정을 붙이고 의지할 수 없이 전단수가 없으면서도 생각을 계속해 왔습니다.

얼마전 서울 구로동 등산로 살인사건으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주범 김모씨가 경찰에 자수한 직후 모교인 선문 기자에게 한말이다.
▲회사가 없어 주인의 책임이 자 진과를 단것에 절도죄가 씌어져 소년원으로 보내지는 각박한, 수습생활을 용리금에 상생사건을 살인미수 사건으로 확대보고하는 경찰. 저자는 범죄에 비해 너무나 얕은 형벌을 주는 재판. 사회에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육시키기 보다 오히려 비난과 욕을 받도록 교육(?)시키는 교도소 전과자에게서 배울 바를 배워야 하는 것이지 억지하고 외면하는 것 밖에 없다는 변절한 현실...」

▲살인, 강도, 강간 등 40여차례에 걸친 그의 끔찍한 범죄행위에 누구나 경악과 분노를 감할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찰에 자수하기에 앞서 자기 몸에 걸려있는 현상금을 가난하고 나이 어린 제소자들의 혼외와 복지에 써달라고 요구하는 그의 아이러니한 행에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살인범으로 살아야 하는 그에 대한 분노보다 그가 살인자가 될수 밖에 없었던 유죄사회의 모순된 현실을 비판 하지 않을수 없다. 또한 잔인한 형벌을 생각하면서

도 「유죄이면 무죄 무죄이면 유죄」라는 「논리」가 공공연하게 통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를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극단적 이기주의, 향락주의 배후주·...등의 온갖 잡사상이 유포되는 자본주의사회의 속성을 붙들 늘어났다는 범죄와 잔혹성이 이제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평범한 사람을 살인자로 양산시키는, 바로 그런 구조를 어느 지고 있는 사회가 철저히 뜯어 고쳐지지 않는다면, 어느 세 무감각해진 우리 자신이 수감된 범죄자의 모습으로 TV뉴스에 나올수도 있을것이다.

(허행진)

범죄를 늘리는 사회

범죄를 늘리는 사회

범죄를 늘리는 사회

범죄를 늘리는 사회



외대학보 43기 수습기자 모집
원서접수 3월14일(수)까지

지금 뛰어드십시오

우리시대의 「대학」을
대학인의 「언론」을
그리고
언론의 「미래」와 「사명」을
고민하셨다면
지금 「외대학보」에 뛰어드십시오.

새시대 90년대의 시작과 함께 시작할 「외대학보 43기」기자는 승리의 현장에서 산 호흡을 함께 느끼며 뛰게 될 자랑스런 신세대가 될 것입니다.

외대학보

이번호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기획시리즈 「사회주의권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2) 개혁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집이 필자의 사정으로 인해 실리지 못함을 사료드립니다.

저면에 실린 논문은 해방후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게되는 배경과 아울러 주한미군 철군론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고찰한 글입니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이후 논의를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편집자)

1. 머리말

「주한미군 철수 운동하는 자는 민족의 반역자다」라는 극우 패시스트들의 잡크레가 거의 70년 넘게 유포돼 왔는데, 최근에는 그로 인해 사회적으로도 입에서 주한미군의 갑작스럽고 인위적 철군요구를 공개·공식화하기 시작했다.

실로 「반미의 무장투쟁」이란 한만도 남쪽에서 반미운동의 역사뿐만 아니라 「반미의 열풍」이 불기 시작했으며 민족들의 진술은 의견적이나 주한미군철수의 부분적 성과를 얻기 시작한 것이다.

계속 열기를 더해가는 통일운동의 발전에서 주한미군철수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로써 「신식교」에 의한 사회적 평화공생은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를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제 민족의 주체로 서나가는 이념운동에 주한미군을 대항하는 대항의 상징이 되려는 실천적 자세에서 그 철군의 요구가 민족의 자주성을 찾으려는 반미운동의 본질적 요구로 상충되고 있는 것이다.

2. 몸 말

1945년 9월 남한을 점령하고 49년 6월 철수를 한 미국은 다음해 UN군의 일환으로 참전했는데, UN군 중 미국은 공군의 98%, 해군의 83.8%, 지상군의 88%에 해당했다. 그후 남은 독트린에 의해 71년에는 미7사단을 철수시키고 새로운 한미 연합군으로 편제되어 존재하는 한편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은 미한합치와 관련되어 있는 미국-일본-방사선과 미 태평양지구 사령부에 의한 미제7공군기, 해군은 일본-요코하마에 방공부를 둔 미 7함대의 배치와 관련 있으며 실제 주둔 군은 약 4만4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철군을 둘러싼 논의

1945년 9월8일 한반도에 전한 미군은 전쟁 45년의 역사이며 몇차례의 철군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가. 1차 철군론

1945년 9월 15일부터 미령지역에 시작되어 1949년 6월29일 완료된 제1차 주한미군 철수는 2차 세계대전후 세계제국의 변화-일련체제에서 냉전체제로의 이행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특히 1947년을 전한전후로한 미국의 대한정책의 전적인 변화에 이루어졌다. 전후 평화의 토대가 된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미소양국이 공존할 수 있으며 강대국 사이의 전후동맹이 전후에는 협력과 이해로 전환되리라는 믿음에서 결의된 얄타체제는 중국 국민당의 정권과 대립과 동북아시아의 소련의 중대외교가 압력속에서 냉전체제의 대립이 요구되었다. 또한 2차대전 종결이후 미국의 냉전체제에 공적자간의 요구가 제기되었다. 결국 동북아시아의 미 군사력의 상대적 약화라는 현실적 여건을 바탕으로 세계적

이 수립되었고 주한미군의 철수도 단행되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한 1년여의 논의를 조정하여 제출한 최종 정책지침서인 「한미에 대한 미국의 입장(NSC8)」에서 「약일항을 최우선시하면서 가능한 한한 조속한 시일내에 미국이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도록 한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정부는 모든 정당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이후 내용을 보완 49년 5월 28일 관부하고 있던 1개년대단타의 최초의 철수부 1천5백명이 인천을 떠났으며 6월27일 마지막 부대가 떠났고 함께 미군사령부는 해산하고 7월1일에는 5백명만 한도로 남은 군사교관단이 발족했다.

나. 2차 철군론

70년 주반에 시작되어 71년3월에 완료된 제2차 주한미군철수는 「너는 독트린」에서 그 논의가 비롯되었다. 이는 60년대들이 다국적화, 세계화, 핵전쟁위기로 인한 미국의 국제적 위기의 실추에서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역할에 회의를 품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미국은 새롭게 변화된 세계에서 중공과의 대립을 분석하고, 남북에서 유전정체화를 시작함으로써 국내적인 분열을 종식시키고 아시아에 대한 개입을 줄이는 방향으로 강구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주한미군의 갑작을 전제로 보완책을 논의하는 한미간의 협의는 꾸준히 계속되어 71년 2월5일 한미양국정부는 주한미



윤 설 현
(동양·언어4)

배치되어있던 미 군사교관단을 통합하여 「주한미군철수군사위원단」으로 발족시켰다. 또한 군사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71년 3월1일 제1군단을 한미 제1군단으로 개편발족했다.

다. 3차 철군론

77년 중반에 시작되어 78년말에 일단락되는 제3차 철군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선 카터가 그의 선거공약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들고 나오므로써 정경과 되었다.

남은 독트린 이후 아시아 지역에 서의 분쟁에 대한 자동개입을 포기한 미국은 카터 행정부의 외치는 아시아-태평양의 인권문제를 연루, 개입외교정책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카터행정부는 극동에서의 전진전략을 포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기로 했으며 이는 중대전직에 의해 일단 수립되었으나, 그중에서 미국의 전진전략과 전술적 기 배치를 내용으로하는 강력한 개입정책을 폐기하고 미군기지의 후퇴를 말하는 것이다. 실제 당시 이후 철군논의의 공식발표는 아니었으나 철군제안이 군사적 정보나 현실에 입각하지는 정치적 동기



남북한 신뢰구축의 평화적 관계 위한 미군철수의 구체적 방안 제시되어야

며 내세, 대북대대를 한국에 투입시킬수 있는 미국의 능력과 과시하기 위한 여러차례의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실시들이 약속되었다. 79년들에서 동북아 정세 파악에 새로운 정책입안들이 시도되었고 79년 6월에는 미국의 대북한 군사력 재평가 작업이 완료되었다. 재평가된 정보에 의거하여 한국을 직접 방문하고 돌아온 카터 대통령은 79년 7월20일을 기해 주한미군철수계획의 사실상 백지화인 81년 까지의 주한미군 철수 동결조치를 발표하였다.

지자는 1987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2천억달러, 대외부채를 2천6백36억 달러까지 올려놓았었다. 또한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1987년 현재 GNP의 6.8%에 달해 한국전쟁이후 60년대 말까지의 8~10%에 육박해 가고 있었으나 이제는 이것이 현 실정을 무시할 수 없게되었다. 미국은 88년, 89년 양회개원년도에 5백3십억 달러의 군사비를 감축했다. 전년도에 비해 약 1%가 줄어든 수치이다. 그러나 군사비를 축소한다고 해서 사회주의 세력의 대결

을 유지하며 미국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한편으로 철군론의 내용과 한편으로 동맹국 방위분담금에 하를 줄이자는 그들의 상을 지키려 하고있는 것이다.

3. 맺음말

남한대 3군대의 주한미 공군기지 폐쇄와 방포인미대 지난 2월 15일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선 체나 미국방장관이 주한미군을 93년까지

군사훈련을 통해 강화되는데 한미일 삼자 군사동맹으로 구제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유럽에서의 활발한 군축논의의 전진에서 대결의 냉전체제는 이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세계사의 조건의 형성되고 있다.

또한 87년 6월항쟁과 88년 이후 제1회 전국동일지방선거의 전술로 민족해방운동은 실천적 민족주의의식으로, 반북대결의 냉전사고 대신 민족 단결의 평화이념으로 7천만 겨레에게 「조국통일」의 절대적 과제를 각인시켰다.

즉 통일논의 전진에 대한 기대에 주한미군은 침묵해가는 냉전의식의 회의를 위해서, 식민주의 지배체 유지의 새로운 개입모드로써 철군을 논의하는 것이 아닌 남북한의 신뢰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상호군축과 평화, 그리고 정착을 통한 민족의 전진이라는 연관에서 구체적인 철군의 일정과 내용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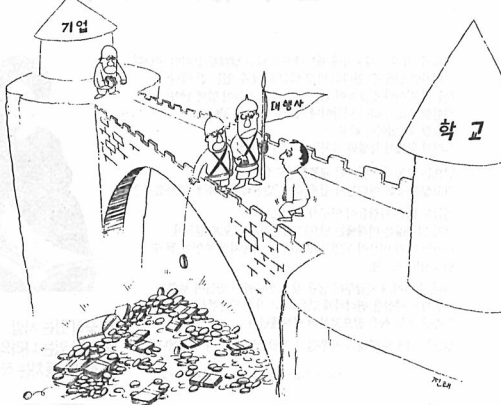
만일 파나마 침공이나 나카라에 대한 침입이라는 반혁명 행위가 보이듯이 아직 포기하지 못한 미국의 세계지배체제 유지의 야심이 새로운 개입정책인 주한미군철군으로 다시 나타난 한미 양국을 우용한다면, 이란에서 팔레스트인의 열망과 함께 달한 패배를 미국은 한반도에서도 다시 당하고야 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페미니즘(Feminism)

·소금상자·

사회·정치·법률적 측면에서 여성의 권리확장을 주장하는 「여성권장운동」을 말한다. 초기의 여성운동은 프랑스 혁명 다음 차를 제기되어, 노예해방·노동운동과 연계된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위한 기독교 복음에 역점을 두었고 1960년 대 후반에 와서는 경제·문화적 측면까지 확대되면서 여성인권의 회복·여성해방운동의 성격이 띠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에 본격화되었으며 「관공자상」 성고문사건, 여성계로 크게 대두되었다. 이러한 여성운동은 반북·반독재투쟁과 연계한 사회구조에서의 여성해방운동으로 침철되어가고 있다.

돈이 쏟아지는 다리?



대학신문광고 질서회복을 위하여

둘, 약덕광고대행사의 파행성을 고발한다.

「광고」 실간 실어야 했는데.....

전리담구를 최고의 선으로 두고있는 대학에서 발행되는 대학신문에 상업광고의 필요성을 생각해보셨습니까? 대학인의 등록금으로 대학에 의해 제작되어지는 대학신문. 이곳에 무차별·무분별한 폐쇄성광고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문발간의 부분적 재정보조를 위해 그리고 광고계제를 원하는 기업에 이해가 맞도록 상업광고가 대학신문 저면의 1/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 대학과 기업을 이어주는 다리가 바로 「대학신문 광고대행사」입니다. 따라서 광고대행사가 어떤 성격과 취지를 갖는가에 따라 대학신문 광고저면의 질과 내용은 크게 좌우된 수밖에 없습니다.

「돈벌이」라면 뭘든지 실을 수 있도?

하지만 광고대행사의 목적이 대학의 발전보다는 돈보따리 불리기와 급급하다면, 대학문화의 건강함은 이속에서 파문해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대행사에 의해 저질러진 대학신문광고의 현실입니다. 「돈보따리」속에 묻혀 버려지는 우리 대학인의 정신!

이제 독자와 학생기자 그리고 학교담당 모두가 힘을 합쳐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 광고질서회복을 위한 약덕기업추방공공대책위원회 (서강학보사, 성대신문사, 외대학보사, 현대신문사)

三星

젊은, 지은, 아픈, 격렬함! 수필 새내기 우리 민해에게

고양을 선생님께, 젊은 지은, 아픈, 격렬함! 젊은 지은, 아픈, 격렬함! 젊은 지은, 아픈, 격렬함!

모 게시판은 물론이거니와 곳곳의 내미 유류들, 심지어는 길 바닥까지 젊은 지은, 아픈, 격렬함! 젊은 지은, 아픈, 격렬함!

미리 타지도록 고민하면 성공하는가? 라는 말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마친 후의 제 모습을 상상해보고는 피식하고 웃어

오르는 물방울같은 느낌이었. 선배들이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싶었던 내 지인사가 그 저나치는 말처럼 들리

열린 손이, 광주에서 아파를 앓았던 친구이러. 이런 소

“선생님 방학때 내려 갈 때는 꼭 맞는 제 옷을 입고 갈게요”

장에 모여 동독금 인상 품류부 생에 관한 결회를 하니 참석하 라는 선배의 제의를 듣고 이

나에게 주어진 아나, 내가 선택한 모든 일들을 온몸으로 부

비가 되고 바람이 되고 해가 되렴. 혹은 붉은 산홍이 되구

못은 친구의 이야기, 이런 너의 조그만 일상의 에피소드를 듣고 싶었다. 난 내가 무척 사

정명근 (서화·플랜더어3)

이제 얼마 앞당겼으면 켈퍼 스 구석구석 파묻힌 잔디와 이

전위가 되어

나 이제 전위가 되어 적 앞에 서고 싶다 더 이상의 침묵은 아련임을

혼돈을 뚫고 지나가는 빛의 칼날로 잠들지 못할 역사의 혼을 신명나게 하는 전위가 되고 싶다

아침과 위선으로 부터 열등과 자기 모멸로 부터 나를 구하는 우리를 결사(結社)하는

나는 적 앞에 선다 전위가 되어 (*C.C:Combat Cell의 약자) 이 동 현 (정·경·의3)

신간세 창작과 비평 1990년 봄호

그간의 문학운동 이론투쟁과 정서적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생산적인 토론

「주제글」을 모읍니다

○ 주제: 「4월 그 가슴으로」 ○ 기간: 4월 7일까지 ○ 대상: 대학생, 일반인

그때는 등록금이 이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외대 자(자)-

꽃병 만지 보는데 소원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손수 제작 했고, 알마친에는 피지

주제: 내가 처음 외대에 들어와서

배움만 제대로 정할 하교는 넓고 할일은 많다. -왕산남(男)-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극복은 성취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부터 비롯된다』

-지난 3월9일 웅진캠퍼스 입학식- (주재명 기자)

정명근 (서화·플랜더어3)

처음에는 5개국어에 능통 하는 것이 목표였지. 전공 영어, 부전공 독일, 제2외국

비서생활, 아! 이게 대학인거야.

다들 주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전화번호 변경안내

본 대학교 서울캠퍼스의 구내전화번호를 DLD 방식(구내직통전화)으로 개편함에 따라 학교 대 표전화 및 구내전화번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

기	최	정	장	교	사	부	장	4102	출	관	자	장	4142	이	사	장	4201	시	정	자	4424
기	최	정	장	교	사	부	장	4102	출	관	자	장	4142	이	사	장	4201	시	정	자	4424
기	최	정	장	교	사	부	장	4102	출	관	자	장	4142	이	사	장	4201	시	정	자	4424

기	최	정	장	교	사	부	장	4102	출	관	자	장	4142	이	사	장	4201	시	정	자	4424
기	최	정	장	교	사	부	장	4102	출	관	자	장	4142	이	사	장	4201	시	정	자	4424
기	최	정	장	교	사	부	장	4102	출	관	자	장	4142	이	사	장	4201	시	정	자	4424

기	최	정	장	교	사	부	장	4102	출	관	자	장	4142	이	사	장	4201	시	정	자	4424
기	최	정	장	교	사	부	장	4102	출	관	자	장	4142	이	사	장	4201	시	정	자	4424
기	최	정	장	교	사	부	장	4102	출	관	자	장	4142	이	사	장	4201	시	정	자	4424